

10만원으로 경주마·미술품 산다… ‘조각투자 시장’ 11월 개장

오는 11월 16일부터 주식처럼 거래
내년 2월 토큰증권 법적 기반 마련
올해 조각투자 발행건수 14건 그쳐

“내 말이 이번 주말 과천 경마장에서 경기를 뛴다네. 부چه 혈통이 좋고 체격도 커서, 승률이 높은 편이야. 얼마에 샀냐고? 10만원 투자했다네.”

지금은 허풍처럼 들리는 이런 자량이 오는 11월이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경주마나 미술품, 부동산, 영화제작 등에 일반인도 소액으로 ‘조각 투자’ 할 수 있는 신종증권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내년 2월부터는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가상자산·금융업계에 따르면 한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국거래소(KRX)는 지난 3일 ‘신종증권 시장 개설 안내’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종증권이란 기존 정형화된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비정형적 권리를 증

권화한 상품을 의미한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미술품, 가축 사육, 영화 제작,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눠 여러 투자자가 투자하는 조각 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각 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다만,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지정가 주문만 허용된다.

거래소는 올해 10월 6일~11월 13일 총 6주간 모의시장을 연다. 실제 시장 개설일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장내 신종증권시장에 상품을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까지 의무 보유 10억원(또는 5%)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품 역시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또는 10만 좌)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신종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된다는 점에서 내년 시행되는 토큰증권 제도와는 구분된다.

내년 2월 4일부터는 개정 전자증권법(토큰증권법) 시행으로,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 방식의 발행·관리가 가능해진다. 토큰증권의 구체적인 유통시장과 범위는 미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는 (전자증권으로) 장내 또는 (토큰증권으로) 장외에서 발행할 것인지 선택지가 있다”며 “향후 법이 시행되면 투자계약증권을 기반으로 토큰증권 활용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급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부동산·음원저작권·미술품·가축(한우·한돈) 등 4개 부문을 합산한 조각투자 발행 건수는 올해들어 지난 11일 기준 14건에 그쳤다. 조각투자 발행 건수는 2023년 3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50건으로 줄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KCGI운용, 주식형펀드 3년 새 3배 성장

전체 순자산 5.9조… 업계 10위 도약
연금자산, 3.3배 증가한 2조2500억

KCGI자산운용이 사명 변경 3년 만에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을 약 3배로 늘리며 업계 10위에 진입했다. 연금자산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순자산은 5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CGI자산운용은 지난 7월 말 기준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이 2조16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7월 말 7400억원에서 3년 동안 1조42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공모 주식형펀드 순위는 48개 종합자산 운용사 가운데 17위에서 10위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의 공모 주식형 시장의 성장률을 웃돌며 대형 금융그룹 계열 운용사가 주도하는 상위권에 진입했다.

◆주식형 3배·전체 순자산 2.1배 ↑… 연금자산 3.3배

주식형펀드 성장을 바탕으로 회사 전체 순자산은 3년 전보다 2.1배 늘어난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공모펀드 가운데 재간접형 순자산은 49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업계 10위에 올랐다.

채권형 순자산은 400억원에서 2600억

원으로 572%, 혼합채권형은 1000억원에서 4300억원으로 339% 증가했다. 주식·재간접·혼합형·채권형을 합친 공모펀드 순자산도 1조7300억원에서 4조6600억원으로 늘었다.

장기 운용 성과도 뒷받침됐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 펀드 가운데 벤치마크를 웃돈 비율은 1년 50.0%에서 3년 82.8%, 5년 88.5%, 10년 90.0%로 높아졌다.

대표 상품인 ‘KCGI코리아 1[주식]’의 3년 수익률은 170.6%로 벤치마크를 17.0%포인트 웃돌았다. ‘KCGI코리아퇴직연금’과 ‘KCGI코리아연금전환자’도 각각 164.6%, 165.8%를 기록했다. 유형별 3년 초과 수익률은 국내 주식혼합형 24.9%포인트, TDF 18.2%포인트, 해외 주식혼합형 15.8%포인트, 해외 주식형 13.3%포인트였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연금자산은 3년 동안 3.3배 증가한 2조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펀드 자산은 6.6배로 늘었다.

TDF 순자산은 지난달 초 1조원을 넘어 업계 8위에 올랐다. ‘KCGI프리덤펍적TDF2050’의 3년 수익률은 59.0%로 벤치마크보다 25.8%포인트 높았다.

‘KCGI샐러리맨[주식-재간접]’의 3년 수익률은 73.9%로 벤치마크를 40.8%포인트, ‘KCGI차이나[주식]’은 53.2%로 38.1%포인트 각각 상회했다.

◆판매망 넓히고 ETF·대체투자로 확장
운용 성과는 판매채널과 기관 위탁운용 확대에도 연결됐다. KCGI자산운용 펀드를 1000억원 이상 판매하는 대형 채널은 3년 동안 2곳 늘어난 10곳, 100억원 이상 판매하는 중형 채널은 5곳 증가한 29곳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공제회 등 약 20개 기관투자자의 위탁 운용사로 선정됐다. 올해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와 제휴하고 관련 펀드를 출시하며 해외 투자 상품군도 보강했다.

KCGI자산운용은 앞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채권·대체투자와 사모 운용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연금자산과 글로벌 투자, 종합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차별화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장기 투자에 함께하는 운용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배형근 사장 “AI 경쟁력이 미래 성장 좌우”

(현대차증권)

대담회 열고 주니어 직원들과 소통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이 주니어 직원들과 만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금융 전환을 미래 성장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13일 배 사장과 사내 주니어보드인 ‘CLB(Change Leader Board)’가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대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CLB는 현대차증권 출범 이후 약 18년간 운영된 주니어 직원 중심의 소통 협의체다. 현재까지 약 150명이 참여해 업무와 경영 활동, 인사·복지제도, 기업문화 등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배 사장은 2024년 취임 이후 전국 지점 순회 간담회와 CLB 대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임직원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CLB와도 정기적으로 만나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해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 CLB 위원들은 업무와 AI 활용, 조직 혁신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의 변화를 점검하고 회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배 사장은 최근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회사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전달하고 주주를 위한 책임경영을 실천하려는 취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코스피 변동성 완화장치 실효성 높여야”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치의 발동 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장기 기관 투자자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의 김준석·장근혁 연구원은 ‘주식 시장 변동성 상승의 배경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두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3.6%로, 1.4%였던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커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에 따라 유가와 금리,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

유형별 매수와 매도가 차별화되면서 수급의 충돌이 크게 강화한 점을 변동성의 배경으로 꼽았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두 종목의 코스피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한 가운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덩달아 증시가 출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두 연구원은 “정보에 근거한 가격의 조정은 저해하지 않되 쏠림과 왜곡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가 지수 연계 투자 상품이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편중되지 않도록 비중

제한 지수의 활용을 확대하고 변동성 완화 장치의 발동 기준을 정교하게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동성 완화 장치 중 동적 완화 장치는 코스피200 종목에 대해 직전 체결가 대비 ±3%, 코스피200 이외의 종목은 직전 체결가 대비 ±6% 기준이 적용되고, 정적 완화 장치는 모든 종목에 대해 전일 종가 대비 ±10%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두 연구원은 개별 종목의 유동성과 변동성 수준은 매우 다름에도 코스피200 여부에 따라 또는 모든 종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는 실효성이 높은 구조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들은 또 국내 장기 기관 투자자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

NH투자증권, 중기형 IMA 3호 출시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높여

NH투자증권은 18일부터 24일까지 중기형 IMA 상품인 ‘N2 IMA13호’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만기는 2년3개월이며 총발행액은 1200억원이다. 모집 한도가 소진되면 청약 기간 중에도 조기 마감된다.

이번 상품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은 연 4.5%로 앞선 상품의 연 4.0%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기준수익률을 초과해 발생한 수익에는 40%의 성과보수가 적용된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원금 지급을 약정하고 조달한 자금을 인수금융과 기업대출, 회사채 등 기업금융(IB)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원금 지급이 약정된다.

NH투자증권은 기업금융 부문에서 확보한 투자 자산 발굴 능력을 활용해 우량한 중장기 기업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단순히 시장금리를 추종하는 상품과 달리 기업금융 자산의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앞서 출시한 IMA 1·2호는 모집 한도를 모두 채웠다.

NH투자증권은 이번 3호에서도 기준수익률을 상향해 투자자가 성과보수를 부담하기 전 가져가는 수익의 기준을 높였다. 기준수익률을 넘어선 운용 성과에 대해서만 성과보수를 부과해 고객과 증권사가 초과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